

甲骨文 簡化字素 ‘△(mǐn)’ 小考

박석홍*

◁ 목 차 ▷

- I. 서언
 - II. 갑골문 ‘皿’의 형체 분석
 - III. ‘△’ 출현의 근본적 원인 분석
 - IV. ‘△’ 분석의 고대한자 연구 중 운용
 - V. 결어
-

I. 서언

고대한자 중에는 고도의 형체 간략화에 의해 필획이 추상화되어 직관성이 약화되거나 形體合流¹⁾ 인해 다른 문자 및 자소와의 변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으로 隸定할 수 있는²⁾ 갑골문 ‘皿’의 간화자소이다. ‘△’은 원래의 형체인 ‘皿’과 마찬가지로 [容器]라는³⁾ 의미자질을 가진다. 그런데 이것의 갑골문 형체는 [구덩이] 또는 [함정]이란 의미자질을 포함하는 ‘凵’과

*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1) ‘형체합류’는 원래 서로 다른 문자가 형체 변화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같거나 유사한 형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체합류는 고대문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형체와 의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표의문자에 있어서 형체 변별에 따른 의미 변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사주체의 서사 행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한 것으로서, 한자 형체의 변화 및 발전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자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2) 본고에서 ‘皿’의 간화자소를 이와 같이 예정한 것은 ‘坎’의 初文 ‘凵’과의 형체적 구분을 위해, 그리고 《說文解字》(이하 《說文》)에 수록된 ‘△’와의 구분을 위해서이다(본고 제 IV장 제2절 참조).
- 3) 본고에서는 의미자질과 字義, 기물 명칭, 기물 부위별 명칭 등의 구분을 위해 의미자질은 ‘[]’ 안에 표기하였다.

형체적으로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형·의 고석에 있어 [용기]라는 의미자질 대신에 [구덩이]·[함정]이란 의미자질을 포함하는 문자로 고석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에 주목하여, 먼저 갑골문 ‘𠄎’의 다양한 형체와 이것의 변화 과정 및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𠄎’의 간략화된 형체라는 사실과, 또 ‘△’의 출현이 고대 서사주체의 특정 서사심리의 작용과 조자 방법의 운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구덩이]를 포함하는 문자로 고석된 몇몇 갑골문들이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가지는 문자로 고석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해보으로써 관련 문자들의 고석에 있어서의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 갑골문의 字素目錄에⁴⁾ 편입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기술해보으로써, ‘△’의 자소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II. 갑골문 ‘𠄎’의 형체 분석

갑골문 중의 ‘△’이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가지는 ‘𠄎’의 간화자소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것의 원래 자형인 ‘𠄎’의 형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𠄎’이 單字로 사용된 것과 偏旁字로 사용된 것 모두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독으로 사용된 ‘𠄎’은 형체 구현 정도가 비교적 구상적이어서 ‘𠄎’이 형상화 대상으로 삼은 객관사물의 전반적 외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편방으로 쓰인 ‘𠄎’은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는 다른 서사환경 중에 출현한 ‘𠄎’의 변이형체들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조건에서 나타난 ‘𠄎’의 각종 형체들 중에서는 ‘𠄎’의 간화자소 ‘△’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는 문자적 단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래에서는 먼저 단자 혹은 편방자로 사용된 ‘𠄎’의 형체들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이 ‘𠄎’의 간

4) 개별 언어에서 운용되는 문자들의 총화를 문자목록이라 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소 목록은 하나의 문자체계 내에서 사용된 모든 자소들 중 다른 자소간의 형체 및 의미변별이 되고, 또 사용빈도가 높은 가장 전형적인 것들을 모아 하나의 체계화된 목록으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 문자목록에는 음·의가 동일한 다수의 이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소목록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이형 자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화자소임을 밝히는 문자적 단서로 삼고자 한다.

1. 단독의 ‘𠃉’

‘𠃉’은 갑골문에서 주로 ‘𠃉(乙7288)’·‘𠃉(燕798)’·‘𠃉(乙6404)’ 등의 형태를 띠며, ‘容器’를 형상화한 독체상형자이다. 이들 형태가 형상화한 것이 과연 어떤 용기인가에 대해서는 ‘豆’⁵⁾·‘尊’⁶⁾·‘甗’⁷⁾ 등 이설이 분분하다. 갑골문 ‘𠃉’의 형태에서는 용기의 아가리(口)·본체(腹)·목(頸)·다리(足)⁸⁾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부위는 대체적으로 豆·尊·甗뿐만 아니라 盤·壺·簋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𠃉’의 갑골문 형태만으로는 이들이 과연 어떤 용기를 상형한 것인지 특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오히려 ‘𠃉’이 특정의 용기라기보다는 범용의 용기, 또는 모든 용기의 총칭일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𠃉’을 편방으로 취한 문자들 대부분이 祭祀와 관련한 것들이 많고, 실제로 해당 문자 중 표의상 호응하는 나머지 편방들이 祭物을 뜻하는 자소인 예가 빈번하기 때문에, ‘𠃉’은 적어도 갑골문에서는 일반적인 조리기구나 식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용기라기보다는 주로 祭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처럼 ‘𠃉’이 어떤 용기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갑골문 자형 중 비교적 구상도가 높은 형태인 ‘𠃉’·‘𠃉’에 근거하면, 이들은 《說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豆’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즉 ‘𠃉’은 본체인 腹과 그 아래의 길거나 짧은 頸, 그리고 이를 받치고 있는 足 등을 갖춘 구조의 용기이다. 이에 ‘𠃉’을 의미자질 [腹]·[頸]·[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들로⁹⁾ 구성된 문자로 분석해볼 수 있다. 단독의 ‘𠃉’이 이처

5) 羅振玉(1915)은 《說文·皿部》중 ‘𠃉’에 대한 해석(“𠃉, 飯食之用器也。象形。與豆同意。凡皿之屬皆從𠃉。”)에 따라 ‘𠃉’을 ‘豆’와 유사한 용기로 보았다. (“卜辭中皿字或作𠃉, 若豆之有散, 故許云‘與豆同意’”)

6) 裘錫圭(1993)는 갑골문 중의 ‘𠃉’·‘𠃉’ 등을 고석하면서 ‘𠃉’을 ‘尊’의 일종으로 여긴 바 있다(季旭昇(2003:674)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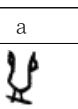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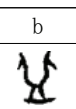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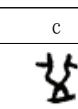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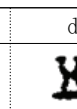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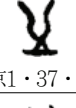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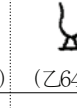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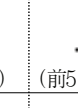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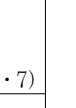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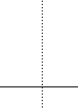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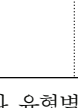

7) 馬叙倫은 ‘𠃉’과 ‘盂’ 간의 음운적 유사성에 근거해 ‘𠃉’의 갑골문 자형을 이와 같이 고석한 바 있다(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2004:5·169)에서 재인용).

8) 용기의 각 부위는 아가리·본체·손잡이(柄)·받침(底) 등으로 칭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각 부분을 ‘口’·‘腹’·‘頸’·‘足’ 등으로 칭하였다.

9) ‘형체소’란 해당 문자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자질에 대응하는 형체 구성요소를 가리키

럼 모두 [腹]·[頸]·[足]을 형상화한 형체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해당 용기의 가장 주요한 형체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형체소들이며, 또 이들의 조합체가 바로 '皿'이라는 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자질 [腹]·[頸]·[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들의 서로 다른 형체 특징에 근거하면 갑골문 '皿'은 다음과 같이 A·B·C·D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a	b	c	d	e
皿	A	 (乙7288)	 (燕798)	 (佚826)	 (前5·19·5)10)	
	B	 (續存242)	 (京1·37·3)	 (續5·13·6)	 (乙6404)	 (前5·3·7)
	C	 (乙6404)	 (粹563)			
	D	 (乙8662)	 (佚144)			

〈표1〉 '皿'의 각종 형체와 유형별 분류

앞 〈표1〉 중 A는 용기의 口 주변 혹은 腹 위에 존재하는 사물을 형상화한 별도의 짧은 필획이¹¹⁾ 첨가되어 있고, 또 腹을 유려한 곡선으로 형상화한 형체이다. 갑골의 서사도구 특성상 간략한 필획의 구현이 용이함에도 이들은 굳이 다수의 필획과 곡선의 필형으로 '皿'의 형체를 구현한 것으로, 나머지 B·C·D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는데, 모든 문자 또는 자소는 하나 이상의 형체소 및 그 결합에 의해 의미 표시를 실현한다(박석홍 2015a).

- 10) 이 형체가 '皿'이라는 것은 금문 '盂' 중에서 보이는 '盂(匱侯盂)'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1) 이것은 실제의 여러 기물들, 가령 鼎·方彝·尊 등에서의 '耳' 혹은 盤·簋·壺 등에서의 '銜環'을 형상화한 형체소로 추정된다.

B·C·D는 A와 달리 腹이 대략적인 윤곽만으로 형상화되고, 口 주변 또는 腹 위에 존재하는 사물을 형상화한 짧은 필획은 생략된 유형이다. 이에 B·C·D는 A에 비해 간략화된 형체라 할 수 있다. 이중 C는 腹이 구불구불한 곡선만으로 구현되지 않고, 직선 또는 그에 가까운 필획을 일부 포함하는 유형이다. 또한 D는 나머지 ‘皿’과는 달리 腹의 깊이를 알게 형상화하고 腹과 足이 결합한 부분을 사다리꼴이나 네모에 가깝게 구현함으로써 문자 전체의 형체가 일정 정도 추상화된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된 ‘皿’은 [腹]·[頸]·[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데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들은 필형 및 필획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즉 여기에는 필획의 直線化 또는 弧形化의 여부에 따른 형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皿’의 형체 변화의 가장 주요한 내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시적 관점에서 갑골문 ‘皿’의 형체 변화를 기술한다면 ‘皿’의 전체 형체소 중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2. 편방의 ‘皿’

편방으로 쓰인 문자들 대부분은 단독의 문자에 비해 간략화된 형체인 경우가 많아서 해당 문자 형체의 간략화 추세를 파악하고 기술함에 도움을 준다. 이에 편방으로 쓰인 다양한 형체들은 해당 문자의 형체 변화 발전의 형태와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문자 자료의 보고라 할 수 있다.

‘皿’은 갑골문 중 여러 문자들의 편방으로 사용되었다. 편방자로서의 ‘皿’ 역시 다른 문자 중의 편방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¹²⁾, 이들 중에는 ‘ㄩ’이 ‘皿’과 형체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힐 수 있는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皿’을 편방으로 취한 문자들 중 출현 빈도가 비교적 높은 ‘盂’·‘益’·‘蠱’·‘血’·‘甬’ 등 문자들에서 편방으로 쓰인 ‘皿’의 다양한 이체 자형들의 형체를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皿’의 간화자소 ‘ㄩ’의 생성과 관련한 문자적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12) 高明(1996:105)은 갑골문에서부터 소전에 이르기까지 편방자로 쓰인 ‘皿’의 유형이 11가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盂’·‘益’·‘盞’·‘皿’·‘甬’ 중 편방 ‘皿’의 형체 특징에 근거하여 이들 문자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a	b	c	d	e	f	g	h
盂(1)	(後·20·9)	(甲3939)	(甲3919)	(甲357)	(甲505)	(甲3939)	(鄭三48·11)	
益(1)	(珠589)	(粹496)						
盞(1)	(天65)	(前·45·1)	(前8·5·1)	(前·44·7)				
皿(1)	(珠777)	(前4·33·3)	(粹12)	(摭續64)	(前8·12·6)	(摭續342)		
甬(1)	(京都1687)	(存下742)	(甲731)	(掇66)	(河782)	(甲700)	(佚186)	(摭續3)

〈표2〉 ‘皿’을 편방으로 취한 문자들

앞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편방으로 쓰인 ‘皿’은 단독의 ‘皿’과 대체로 유사한 형체이다. 즉 이들 역시 [腹]·[頸]·[足]에 대응하는 형체소와 이들의 조합에 의한 형체가 대부분이다. 다만 편방으로 사용되는 서사환경과 이에 따른 서사심리적 영향에¹³⁾ 의해 편방으로 쓰인 ‘皿’은 단독의 ‘皿’과 구분될 수 있는 형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가 필획상 직선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표2〉 중 盂(1)g, 皿(1)d, 甬(1)g·h가 바로 그 예로서, 특히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구성하는 좌·우 하단 모서리 부분의 둥근 필획을 직각 또는 그에 가까운 필획으로 구현함으로써 편방으로 쓰인 ‘皿’이 [구덩이]·[함정] 등의 의미

13) 대체적으로 편방으로 사용된 문자들은 단독의 문자에 비해 간략화된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한자의 서사 공간이 하나의 ‘方塊’ 안에 제한되어 있어서, 서사주체는 이 제한된 공간 내에 편방자를 서사해야 하기 때문에, 편방자는 원래의 형체에 비해 간략하게 쓰게 되는 것이다.

자질을 가지는 ‘㐁’에 가까운 형체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편방으로 쓰인 ‘皿’ 중에는 [腹]과 [頸]에 대응하는 형체소 간의 서사경계가 모호하거나, 이들 두 형체소가 아예 통합된 것 같은 형체를 포함하고 있다. 盂(1)b, 血(1)e·f, 甬(1)e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여기에서는 상·하 결합 구조의 두 형체소들을 좌·우 각각 하나의 긴 획으로 연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㐁’과 유사한 형체를 출현케 하였다.¹⁴⁾

편방자 ‘皿’의 또 다른 두드러진 형체 특징은 바로 단독의 ‘皿’이 취한 [腹]·[頸]·[足]에 대응하는 형체소 중 일부를 생략하였다는 점이다. 이 특징은 형체소의 필획을 간략화하는 필형의 변화와는 달리, 원래 문자 형체와 편방자 간의 형체적 이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다. ‘盂’·‘益’·‘盞’·‘甬’ 중에서 보이는 이와 관련한 예를 별도의 표로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a	b	c
盂(2)	(後1·18·8)	(前5·5·6)	
益(2)	(乙4810)		
盞(2)	(前1·45·2)	(京2·24·3)	(乙3853)
甬(2)	(後2·42·4)	(京4·9·1)	(粹56)

〈표3〉 ‘皿’을 편방으로 취한 문자들과 편방으로 쓰인 ‘皿’

‘皿’ 중 일부 형체소 생략의 경우는 [腹]과 [頸]에 대응하는 형체소만 남기고 [足]

14) 尊·壺 등이 腹과 頸이 통하는 구조이지만 대부분의 갑골문 ‘皿’의 형체에서는 [腹]과 [頸]에 대응하는 형체소 간의 서사경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皿’을 尊·壺 등의 용기의 상형으로 특지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갑골문 ‘皿’이 [腹]과 [頸]에 대응하는 형체소 간의 서사경계의 명확성 여부와 상관없는 범용의 용기를 나타낸 문자라는 것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에 대응하는 형체소는 생략된 유형, [頤]과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가 모두 생략된 것, 그리고 [頤]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생략하고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남긴 것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에 속하는 예는 앞 <표3> 중 盂(2)a, 益(2)a, 甬(2)a 등이고, 두 번째의 예로는 盂(2)b, 盥(2)a·b·c, 甬(2)c가 있다. 또한 세 번째의 예로는 甬(2)b가 있다.

전술의 일부 형체소 생략의 예 중 특히 盂(2)b는 [頤]과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혹은 편방으로 쓰인 일반적인 '皿'에서 보이는 굽은 필획, 또 盥(2)b와 같은 구불구불한 필획대신 직선 또는 그에 가까운 필획을 채용함으로써 서사편의가 크게 제고되었다. 이것은 원래의 객관사물뿐만 아니라 '皿'의 구상적인 형체와는 확연히 다른 '皿'이 편방자로 운용되었던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甬(2)b는 앞 <표2> 중 益(1)b와 血(1)e·f, 甬(1)e와 같이 [腹]·[頤]에 대응하는 형체소의 통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갑골문 '皿'의 형체 변화의 주요 경향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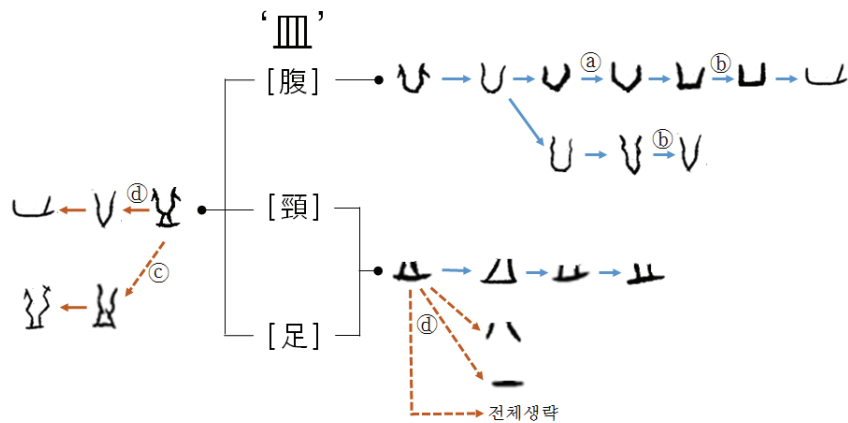
첫째,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만을 존치시키고 [頤]과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는 생략하는 간략화이다. 이것은 '皿'의 전체 간략화 중 가장 주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頤]·[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은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가 상형자 '皿'의 의미를 구성하는 여러 의미자질들 중 가장 핵심적인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가시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용기에서의 腹은 내용물을 담는 용기의 본질적 기능 및 목적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점은 고대 서사 주체 역시 '皿'의 간략화 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둘째,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의 필형상 직선화이다. 이는 유려하게 굽은 필획에서 일정의 각도가 있는 필획으로, 또 완전한 직선으로의 필형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직각에 가까운 좌·우 두 모서리를 가진 형체소의 출현에 형체적 기본 토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형체 변화의 추세에 의한 '皿'의 형체 간략화는 결국 직선화된 필획으로 구성된 [腹] 관련 형체소의 출현을 초래하였고, 이로써 [구덩이]란 의미자질을 가지는 '凵'과 형체합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15) '皿'뿐만 아니라 '鼎'·'鬲' 등 [용기]를 나타내는 문자들의 상당수가 '皿'의 간화자소와 형체적으로 유사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포함하는 문자가 '凵'과 비

이상에서 살펴본 단독 혹은 편방 사용된 갑골문 ‘𠩺’의 각종 형태들의 주요한 간략화 양상을 [腹]·[頸]·[足] 등에 대응하는 세 형체소별로 통시적으로 계통화하여 나타내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1〉 ‘𠩺’의 형체 변화

III. ‘△’ 출현의 근본적 원인 분석

‘𠩺’의 형체 간략화는 한자가 형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표의문자 계열의 문자 언어임에도 이것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존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켰던 고대 서사주체의 각종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 중에는 서사편의를 추구하였던 서사심리의 발현과 핵심형체소의 운용과 같은 문자 서사 및 형체 구성성분 운용상의 특정 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슷한 형체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나타내는 형체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서사편의의 추구

거의 대부분의 고대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의 서사주체는 문자의 실제 쓰기에 있어 서사편의를 추구하였다.¹⁶⁾ 자형이 정형화 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일수록 서사편의가 더욱 강하고 활발하게 추구되며, 이로써 이들 중에는 서사편의의 실현에 따른 다양한 이체 자형들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은 ‘𠄎’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편방으로 사용된 문자는 단독으로 쓰일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서사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서사편의 추구의 정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편방으로 사용된 ‘𠄎’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예는 앞 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𠄎’이 원래의 형체에서 ‘ㄱ’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사편의는 주로 필형과 필획 수 측면에서 실현되었다. 먼저 필형상의 서사편의를 살펴보면, 이것의 주요 내용은 직선화이다. 앞 〈그림1〉 중의 ㉓가 바로 그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는 앞 〈표2〉 중의 𠄎Ca·b와 𠄎Db, 또 앞 〈표2〉 중의 𠄎(1)g, 𠄎(1)d·e, 𠄎(1)g·h 등이 있다. 필형상의 서사편의 추구는 비교적 구상적이었던 기존의 ‘𠄎’의 형체를 추상화하였다. 이를 ‘필획의 추상화’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상적인 필획을 원래의 형체가 형상화한 객관사물의 외형과 그다지 관련이 있지 않아 보이는 임의의 단순한 필형의 필획으로 대체한 것을 의미한다. 필획의 추상화는 곧 객관사물의 형태를 단순한 필획 및 그 조합체로 개괄화함으로써 서사의 편의성은 증대시켰지만 상형의 정도를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 〈그림1〉 중의 ㉔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곡선과 직선 등 다양한 필형의 필획을 운용함으로써 객관사물로서의 ‘𠄎’으로써 형상화하려는 객관사물의 외형적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직선의 필획을 운용함으로써 원래의 형체보다 추상화되어 ‘ㄱ’과 유사한 형체를 출현케 하였다.

다음으로 필획 수의 감소로 실현된 서사편의를 살펴보면, ‘ㄱ’을 출현케 한 필획의 감소는 특히 서로 다른 형체소간 통합에 의한 전체 필획 수의 감소와, 원래의

16) 이러한 서사편의는 음성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언어경제(Linguistic Economy)와 유사한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서사편의는 서사상의 노력의 경제라는 의미에서 ‘서사경제(Writing Economy)’라 달리 칭할 수 있다.

문자 형체를 구성하는 주요한 형체소들 중 특정의 형체소만을 제외한 나머지의 형체소들을 생략함에 따른 전체 필획 수의 감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1> 중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㉔이고, <표2> 중 益(1)b 血(1)e·f와 甬(1)e 등이 이에 속한다. 또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림1> 중 ㉕이며,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표3> 중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만 생략한 盥(2)a, 盥(2)a, 甬(2)a, 그리고 [頤]과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들을 모두 생략한 盥(2)b, 盥(2)a·b·c, 甬(2)c 등이 있다. 이들 중 盥(2)와 甬(2)는 전자와 후자의 예를 모두 포함하면서 서로 다른 정도의 서사편의 추구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盥(2)b는 ‘皿’ 중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를 중심으로 [頤]과 [足]에 대응하는 형체소가 생략되는 간략화와 동시에, 단독으로 사용된 ‘皿’ 중 유려하게 굽은 필획이나 盥(2)b와 같이 구불구불한 필획이 서사에 용이한 필획의 필획으로 대체된 사례들이다. 따라서 盥(2)b 중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 ‘ㄩ’은 서사편의 심리의 강한 작용에 의해 ‘皿’의 원래 형체가 추상적으로 변화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 핵심형체소의 운용

전술에서와 같은 서사편의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서사주체의 다양한 서사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해당 문자의 형체를 간략화시켰고, 또 이렇게 간략화된 문자들은 동일 시기 혹은 다른 시기의 서사주체들에 의해 통용서체로 수용되었다. 그러므로 서사편의의 추구는 고대한자 형체의 통시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사편의 추구의 과정 중에는 원래 형체를 대체할 문자나 자소들이 다양하게 고안됨으로써 서사주체가 해당 의미를 표시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문자나 자소를 선택할 수 있는 문자 운용 여건이 조성된다. 이때 선정되는 형체는 서사편의뿐만 아니라 표의의 효용성이 동시에 추구되어 표의문자의 서사 및 표의상의 한계를 극복한 경우가 많다. ‘ㄩ’ 역시 바로 ‘皿’의 다양한 형체들, 특히 간략화된 여러 형체들 중에서 서사주체들에 의해 선정된 간화자소인 것이다.

‘ㄩ’은 [용기]란 의미자질의 표시에 있어 서사의 편의성이나 표의의 효용성이 모두 추구되어 ‘皿’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형체의 자소이다. 왜냐하면 ‘ㄩ’은 이것이 대표하는 원래의 객관사물의 형태나 속성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형체 구성요소, 즉

‘핵심형체소’이기 때문이다.¹⁷⁾ 즉 갑골문 ‘𩇛’의 형체를 구성하는 여러 형체소들 중 [腹]에 대응하는 ‘ㄱ’류의 형체소는 표의적으로나 형체적으로 갑골문 ‘𩇛’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이 형상화 대상으로 삼은 용기 중의 腹 부분은 실제로 제물이나 음식과 같은 내용물이 담기는 부분으로서 해당 용기의 궁극적 용도가 실현되는 곳이다. 따라서 고대의 서사주체는 [腹]에 대응하는 형체소만으로도 ‘용기’란 의미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이것이 편방으로 쓰일 경우에는 나머지 편방들의 표의상 조력에 의해 ‘△’만으로도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나타내는 데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여겼고, 이에 ‘𩇛’을 ‘△’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𩇛’의 간화자소 ‘△’의¹⁸⁾ 출현은, 범용의 용기를 의미하는 ‘𩇛’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형체소 ‘△’를 선택함으로써 특정의 문자 환경, 특히 편방에서 서사의 편의성과 표의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던 고대 서사주체의 의식적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IV. ‘△’ 분석의 고대한자 연구 중 운용

전술과 같이 ‘△’이 ‘ㄱ’과는 다른 의미자질을 가지는 자소라면, 이를 포함하는 문자에 대한 기존의 형·의 고석의 결과를 재고할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곧 ‘△’의 표의상 고유 지위가 확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앞서 살펴본 ‘𩇛’의 간화자소 ‘△’ 관련 내용에 근거해, 기존에 ‘ㄱ’을 포함하는 문자로 고석하였던 몇몇 갑골문들의 형·의에 대해 재고해봄으로써 해당 문자들의 형체 기원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해보고, 또한 이러한 ‘△’의 표의적 독자성에 근거해 ‘△’의 자소목록 중 편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해보고자 한다.

17) ‘핵심형체소’란 상형자 의미에 내포된 여러 의미자질들 중 가장 핵심적인 의미자질을 구현한 형체소로서, 표의 비중 측면에서 다른 형체소들보다 월등히 높은 표의 비중을 가진다(박석홍 2015b).

18) 앞에서와 같은 간화자소 ‘△’는 비단 ‘𩇛’에서 뿐만 아니라 [용기]를 포함하는 문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ㄱ’ 역시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또한 앞의 두 이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1. 갑골문 형·의 고석 측면

객관사물의 본질적 속성이 반영된 핵심형체소라 하더라도 서사편의 추구에 의해 간략화 정도가 심화되면 해당 객관사물의 형태나 속성을 형상화한 자소 혹은 문자가 다른 자소나 문자들과 형체합류가 발생하여 이들 문자 간의 변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ㄩ’ 역시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가지는 ‘ㄩ’이 형체적으로 ‘ㄱ’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포함하는 문자를 고석함에 있어서 이것이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구덩이]·[함정]을 등의 의미자질을 가진 문자로 고석한 사례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𠄎(鐵171·3)과 ‘ㄱ+動物字’ 구조를 이루는 각종 문자들을 들 수 있다. 전술에서의 ‘ㄩ’이 ‘皿’의 간화자소라는 분석에 근거해 이들 문자들의 형체 기원에 관해 재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𠄎은 ‘函’으로 隸定할 수 있겠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丞’의 갑골문 𠄎(後下30·12)의 이체자로 보고 ‘拯’의 初文으로 단정 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𠄎은 ‘ㄱ·ㄷ·ㄹ’ 등의 형체소가 결합한 문자로서, 𠄎과 비교해볼 때 양 손을 형상화한 ㄹ의 위치가 다르고, 또 무엇보다 ‘ㄱ’의 포함 여부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자형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𠄎을 ‘拯’의 초문으로 보기에에는 무리가 있어서 𠄎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皿’의 각종 형체들의 분석에 근거해 ‘ㄱ’을 ‘皿’의 간화자소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본다면 𠄎은 사람을 구덩이 따위에서 꺼내어 구하는(拯)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용기에 집어넣는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가 된다. 이에 따라 𠄎은 ‘제물이나 犧牲을 술 등에 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인 ‘醞’의 초문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卜辭 중에서의 𠄎은 주로 제사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商代에는 人牲 供犧가 성행하였고, 희생의 처리 및 공회에 있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였던(王平·顧彬 2007:79~121)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𠄎은 [구덩이]에서 사람을 꺼내어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人牲을 용기에 담아 제사 대상에게 ‘바치다’의 의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존에 ‘ㄱ’과 동물을 나타낸 ‘羊’·‘牛’·‘犬’·‘鹿’ 등과 결합된 문자로

분석한 갑골문 𠄎(합22123)·𠄏(합14559)·𠄐(합21257)·𠄑(합10991)에 대해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들 문자들은 각각 '隹'·'隹'·'隹'·'隹' 등으로 예정할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각 동물을 형상화한 편방자를 제외한 '凵' 등은 일반적으로 '구덩이'·'함정' 등으로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이들 문자들을 '埋' 또는 '陷'으로 고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凵' 등 역시 일종의 용기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유력한 근거로는 '蓋'의 갑골문인 𠄒(합10168)가 𠄎(합637), 𠄏(합5771甲), 𠄐(합5771乙), 𠄑(합636) 등의 이체 자형으로도 쓰였다는 사실이다. '羊'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𠄎·'凵'·'凵'·'凵'·'凵' 등은 앞서 살펴본 '𠄎'의 간략화 과정에서 출현한 각종 변이 형태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𠄎'의 간략화된 각종 형태들의 사용은 갑골문 '蠱'이 𠄒(합201正), 𠄓(합14277), 𠄔(합17190), '蠱'가 𠄕(합28149), 𠄖(屯2386), 𠄗(합29273), 그리고 '蠱'이 𠄘(합3515), 𠄙(합7311), 𠄚(합4545) 등으로 쓴 것에서도 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갑골문 '隹' 역시 '𠄎'의 간략자소 '凵'를 취한 문자로 볼 수 있다. 이로써 '牛'·'犬'·'鹿' 등과 결합한 '凵'과 유사한 편방 역시 '凵'으로 유추해 봄으로써 이들 문자들이 [구덩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가진 문자로 고석해 볼 수 있다. 이에 '隹'은 동물을 구덩이에 묻어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사냥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자가 아니라, 일정의 용기에 양·소·개·사슴 등의 동물을 담아 희생으로 바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의미를 가진 문자로 고석할 수 있다. 이들 문자들이 주로 제사명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그러한 사실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凵'을 [용기]로 보는 본고의 가설은 고석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설이 분분한 고대한자 연구에 있어 일정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갑골문 𠄛(합20018)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골문 𠄛은 비록 명확한 예정과 고석이 결여되어 있다(于省湄 1996:3·2684). 이것은 [鬲]과 [용기]라는 의미자질을 포함하는 문자로서 '隹'으로 隸定할 수 있다. '角'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독의 '角'과 비교해 볼 때 간략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방으로 쓰인 문자가 대체로 간략화의 정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角'이 다른 문자에서도 운용된 점(于省湄

1996:3·2566) 등에 비추어보면, 이 역시 ‘角’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角’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의 ‘𠂔’과 관련한 각종 유형의 이체자의 형체 분석을 통해 볼 때, 이 역시 ‘𠂔’이 간략화된 형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체에 근거하면 ‘𠂔’은 짐승의 뿔을 용기인 ‘𠂔’에 담은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로 추정된다. ‘𠂔’에 사람이나 동물을 포함하는 특정의 사물을 담는 것은 다른 문자에서와 같이 대개가 제사 활동에 있어 해당 사물을 공희하기 위함이다. ‘𠂔’에 사용된 ‘角’ 역시 공희용 제물로 추정이 되는데, 이때의 ‘角’은 소의 뿔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한 실마리는 갑골문 ‘解’에서 찾을 수 있다. 즉 ‘解’는 갑골문 𠂔(後下21·5)에서와 같이 두 손으로 소의 뿔을 제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문자이다. 기존의 고석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데, ‘𠂔’과 ‘解’의 동일한 자소의 채용과 이에 따른 표의적 연관성에 근거하자면 이는 곧 공희를 위한 소의 뿔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복사 중에서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가장 큰 제물인¹⁹⁾ 소가 온전한 형태로 바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𠂔’은 犧牲 전체 대신에 뿔만을 바치는 공희 방식을 의미하기 위한 문자인 것이다. 이는 일종의 문화적 간략화라²⁰⁾ 할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고대문화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점은 그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겠다.

2. ‘厶’의 字素目錄 편입 측면

앞에서 살펴본 ‘厶’의 간략화 과정과 이를 포함하는 다수의 고대한자들이 증명하듯, ‘厶’은 적어도 고대한자 중에서는 [용기]를 표시하기 위해 엄연히 존재하였고 또 빈번히 사용되었던 중요한 자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厶’은 적어도 ‘𠂔’의 간화자소 혹은 변이자소로서 자소목록에 편입되어 편방자로서의 지위 또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19) 복사에서는 일반적인 ‘牛’ 또는 ‘雜色牛’인 ‘物’과 같이(徐中舒 1989:83) 소가 제사 중에 바뀌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20) 문화적 간략화란 문화의 원형이 점차 간소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원래의 사물이나 동물은 특정의 부위만으로써 제물이나 희생의 전체를 대신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고대한자 연구서 및 字書 등에서는 ‘△’의 간화자소 및 편방자로서의 지위 부여에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가령 姚孝遂(1989)와 于省吾(1996)에서는 ‘△’이 자소목록에서 보이지 않고, 季旭昇(2003)에서는 ‘𠃉’의 형체 계통 분류에서 ‘△’을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이 단독으로 ‘용기’란 의미를 나타낸 사례가 복사 중에 보이지 않아 표의상 독립적인 지위가 약하고, 또한 이로 인해 이것을 단순히 특정의 서사환경에서 출현한 예외적이고 임의적인 형태로만 본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술의 분석에서와 같이 ‘△’은 갑골문에서 자주 사용된 ‘𠃉’의 이체 자형이고, 또 갑골문 형·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ㄱ’으로 고석한 자소의 상당수가 ‘△’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 자소목록으로의 편입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하겠다.²¹⁾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의 자소목록 편입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고대한자 형체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자서를 통한 원활한 검색을 위해 ‘△’의 隸定과 이에 따른 隸定文의 설정에 관한 방법론의 논의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文》 중의 관련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說文》에서는 형체가 거의 유사한 ‘U’과 ‘U’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구덩이’²²⁾ ‘식기’²³⁾란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들로서, ‘ㄱ’과 ‘△’으로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U’과 ‘U’의 형체적 변별은 윗부분의 벌어진 정도가 넓은가 혹은 상대적으로 좁은가의 차이에 의한다. 이와 같은 형체적 상호 변별은 용기의 아가리가 구덩이의 입구에 비해 좁고, 또 실제 ‘U’가 의미하는 용기의 아가리가 내용물이 담기

21) 변이자소들이 자소목록에 정식으로 편입된 사례들은 고대문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랍]을 형상화한 ‘人’은 다양한 변이자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종 고대한자 자서 및 연구서에서는 이들 복수의 변이자소들을 정식 자소목록에 편입시킨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 역시 ‘𠃉’의 간화자소 또는 변이자소로 자소목록에 편입시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22) 《說文·凵部》: “U, 張口也. 象形. 凡凵之屬皆從凵.” 이에 대해 朱駿聲과 楊樹達(1983:41)은 ‘U’을 ‘坎’의 初文으로 해석한 바 있다.(朱駿聲《通訓定聲》: “一說坎也. 壘也. 象地穿. 凵字從此.”, 楊樹達: “凵, 象坎陷之形, 乃坎之初文.”)

23) 《說文·△部》: “U, △盧, 飯器, 以柳爲之. 象形. 凡△之屬皆從△.” 이 문자는 부수자 이면서도 여기에 부속된 다른 문자가 없다. 다만 이것이 [용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것을 편방으로 취한 일부의 문자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鬯’이다.(《說文·鬯部》: “鬯, 以秬釀鬱艸, 芬芳攸服, 以降神也. 從△. △, 器也, 中象米. 匕, 所以扱之. 《易》曰: ‘不喪匕鬯.’ 凡鬯之屬皆從鬯.”)

는 본체 부분에 비해 좁아 구덩이의 입구와 형태상 구별되기 때문이다. ‘𠄎’의 간화자소 역시 [용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예정에 있어서는 전술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용기]를 포함하는 ‘𠄎’의 간화자소를 ‘△’으로 예정하였다. 이는 ‘𠄎’의 다수의 원래 형체와 간화된 형체에서 구현하고 있는 [腹]에 해당하는 형체소의 형체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바로 앞서 기술한 ‘U·U’의 예정문 ‘ㄱ·△’와의²⁴⁾ 형체적 변별과 함께 ‘𠄎’의 간화자소의 형체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이다. 즉 ‘𠄎’의 간화자소는 용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腹을 형상화한 핵심형체소이고, 또 실제 용기의 상당수가 ‘△’에 비해 口가 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𠄎’의 간화자소는 [口]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다 넓게 구현하여 예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𠄎’의 간화자소는 ‘△’으로 예정할 수 있으며, ‘△’을 ‘𠄎’의 간화자소의 예정문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V. 결어

갑골문 중에서 [容器]라는 의미자질을 포함하는 다수의 문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𠄎’이다. 이것은 비교적 간략한 형체임에도 다양한 이체자형을 가지고 있고, 이들 이체자형은 실제 편방자로 사용되어 자소로서의 지위가 확고하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자소의 지위를 가지는 ‘𠄎’의 이체자형을 ‘△’으로 隸定하고 이것을 포함하는 문자들에 대한 고석과 ‘△’의 자소목록 편입의 문제에 대해 기술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 비록 單字의 지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독자적 자소의 지위를 가짐으로써 표의문자로서의 상형자의 표의 기능 수행에 가장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는 한자의 형체 구성요소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형체적으로 ‘ㄱ’과 비슷하다 해서 이를 포함하는 문자들을 일률적으로 [구덩이]라

24) 후대의 문자 중 ‘U’를 ‘△’의 형체로 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去’이다. ‘去’는 《說文》에서는 ‘사람이 어떤 장소를 떠나다’로 풀이하고 있지만(《說文·去部》: “去, 人相違也. 從大, △聲. 凡去之屬皆從去.”), ‘去’는 원래 ‘盛飯器’를 상형한 문자(王鳳陽 1989:923), 즉 [용기]란 의미자질을 포함하는 문자이다. 이에 《說文》의 각종 판본 및 주석서에서는 이를 ‘△’로 쓴 경우가 많다.

는 의미자질을 가지는 문자로 고석하여서는 안되며, 이들 문자들이 [용기]란 의미자질을 가지는 문자라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의를 고석해야 할 것이다.

‘△’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갑골문에 대한 본고의 고석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들의 형체 및 의미 특징의 분석은 문자의 형체적 유사성이나 실제 복사 중의 사용 상황뿐만 아니라, 이들 문자들이 사용되었던 상대 사회의 여러 문화요소 역시 참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형·의 고석의 결과는 관련 문자의 형체 기원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기술한 ‘△’의 자소적 지위와 관련 문자 고석상의 문자학적 가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은 정식 자소목록으로의 편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로써 ‘△’를 포함하는 문자뿐만 아니라 형체적·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다른 문자들의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단서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漢] 許慎, 《說文解字》(陳昌治刻本) 香港, 中華書局.
 [清] 段玉裁, 《說文解字注》(經韻樓臧版) 臺北, 天工書局.
 [清] 朱駿聲, 《說文通訓定聲》(臨嘯閣刻本) 北京, 中華書局.
 季旭昇, 《甲骨文字根研究》臺北, 文史哲出版社, 2003.
 高明, 《中國古文字學通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古文字詁林編纂委員會, 《古文字詁林》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4.
 羅振玉, 《殷墟書契考釋》(王國維手寫石印本), 1915.
 徐中舒, 《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9.
 楊樹達, 《積微居小學述林》北京, 中華書局, 1983.
 王鳳陽, 《漢字學》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89.
 王平·顧彬, 《甲骨文與殷商人祭》鄭州, 大象出版社, 2007.
 姚孝遂, 《殷墟甲骨刻辭類纂》北京, 中華書局, 1989.
 于省吾, 《甲骨文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96.
 張長壽·陳公柔·王世民,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9.
 朱鳳瀚, 《古代中國青銅器》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5.
 박석홍, 〈意味資質 기반 象形字 形體素 分析 小考〉: 《中國文學研究》第59輯, 2015.

박석홍, 〈象形字 核心形體素 考察〉: 《中國語文論譯叢刊》第37輯, 2015.

【中文提要】

因爲漢字形體的高度簡化而引起的筆劃抽象化及形體合流，許多古代漢字失去了在形體上各個文字或字素之間可以區別出來的形體辨別性，最代表的例子是“皿”的甲骨文簡化字素“厶”。與原來的形體“皿”一樣，“厶”也有義素[容器]。不過，“厶”的甲骨文形體與包括義素[坑]或[陷窳]的“凵(kǎn)”很相似，因此對取“厶”爲偏旁的一些古代漢字進行形義考釋時，經常將它看做爲包括義素[坑]或[陷窳]的文字。本文就注意到前述的事例，首先對甲骨文“皿”的各種異體及它的形體演變過程進行了細緻而系統的分析，然後根據分析的結果論述了“厶”就是“皿”的簡化形體，還闡述了“厶”出現的主要原因就是古代書寫人追求書寫方便的心理與運用“核心形體素”的意識作用。本文還根據“厶”是包括義素[容器]的字素之事實，就提出了在取“凵”的文字當中有些文字也有考釋爲取“厶”的文字的可能性。此外，本文還根據甲骨文“皿”的簡化字素“厶”在漢字形體結構演變歷史上，也在表意功能上確實有自己的獨立性，就提出了將‘厶’編入於甲骨文字素目錄之內之必要性。

【主題語】

中國古代漢字(Chinese Ancient Character) 甲骨文(Oracle Bone Script),
皿(mǐn), 簡化字素(Simplified Grapheme), 形體素(Grapheme)
중국고대한자, 갑골문, 간화자소, 형체소

투고일: 2015. 7. 15 / 심사일: 2015. 7. 20~8. 5 / 게재확정일: 2015. 8. 10